

성경적 리더십

본문 신 31 : 1 - 13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이제 모압 언약 체결이 끝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 임명 절차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리더십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2. 해석 & 적용

1) 하나님은 어떤 분 -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

❶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 3절 -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3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 땅의 백성을 멸망시켜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3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다.

❷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 5절

5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실 것입니다.

5 The LORD will hand over to you the people who live there,

저자는 지난 과거, 요단 동편의 시혼과 옥의 전쟁을 회상시킵니다. (4절) 그때와 똑같이 요단 서편에서도 친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가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③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 6, 8절

6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8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for the LORD will personally go ahead of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either fail you nor abandon you."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같이 있는 아이가 평온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적용 Tip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친히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시험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진로와 미래에 관한 부분입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이 말씀을 기도로 주장하는 담대한 기도를 해 봅시다.

2. 내게 주시는 교훈 - 진정한 성경적 리더란 무엇인가?

① 리더란, 사명을 향해 달음박질 하는 자이다. : 1 - 2절

여기 31장의 분위기는 모세의 죽음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떤 실수나 불순종도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이며, 일종의 당당한 '은퇴식'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명을 다한 삶,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삶이 그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31장의 모세의 삶은 마치 '꽃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과도 같은 사도 바울을 연상케 합니다.

딤후 4 : 7 - 8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8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리더십이 보여 주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리더란 모름지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리더십에서 '출애굽'과 새로운 땅으로의 인도라는 자신의 한가지 목표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한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리더는 '비전'이 뚜렷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길 저자의 사명이란 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명을 이루자면, 삶을 걸어야 한다. 꿈이 있다고 말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걸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결심할 만큼, 아무것도 안하고 적당히 죄 짓는 삶을 살면서 꿈을 이룰 수는 없다.

② 리더란, 사람을 키우고, 격려하는 자이다. : 7절

아름다운 리더란,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는 아는 자이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공동체의 사명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리더쉽을 내려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옥한흠 목사님이 정년퇴임을 통해서 리더쉽을 내려 놓았던 모습을 큰 귀감으로 삼는 것은 한 번 쥔 리더쉽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꺼히 위임하고 또한, 격려를 통해서 후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즉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공식적인 위임식을 의미하며, 특히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세우고, 격려하고, 위임한 것입니다. 멋진 리더는 자신이 떠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① 듣게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 : 9절

먼저, 모세는 이 모든 설교를 글로 남기서, 그것을 전수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과 장로들입니다. 즉 이 2부류가 바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명령은 이제, 귀로 들려진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는 말씀으로 대체된 모세의 사후에, 이것을 지금 모세가 선포된 말씀으로 한 것처럼 동일하게 반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매 안식년, 초막절에 실행된 까닭은 이들이 장막에 거하며, 40년의 광야를 회고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곡식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장막에 거하여, 이스라엘이 율법 공부를 하기 편한 시기,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② 듣게 하라. : 11절

먼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됩니다.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시에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무디의 한편의 설교가 전 미국을 바꾼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와 설교 사역이 중요하게 각광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는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고,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❸ 배우게 하라. : 13절

단순하게 듣게 하는 행위로만은 부족합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거기에, 배우게 하라, 즉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여호와 경회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90년대 한국을 강타한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는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5대손이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요리해서 먹는 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를 직접 훈련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그들을 말씀의 제자훈련 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과연 자신에게 어떤 루트가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❹ 리더란, 한 발 앞서서 순종하는 자이다. :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서 백성보다 한 발 앞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리더쉽은 바로 이 2nd Leadership입니다. 즉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선 수범하여 먼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먼저 순종한 리더에게는 권위가 생깁니다. 즉 성경적 리더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나처럼 순종해봐요'를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서 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쉽겠지만, 리더가 먼저 깨어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리더쉽이라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멀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백성보다 한발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입니다. 백성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 뒤를 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백성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 적용 Tip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명에 충실한 리더입니까? 당신은 팔로우보다 한 발 앞서 순종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지금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세워주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바쁘지만, 내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오늘 내가 리더이기에 한 발 앞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나는 어떤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리더로써 오늘 하루 앞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